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중인식 제고*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먼저 한국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로 공식 지정된 데 대해 나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료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전달하고 싶다. 우리는 이 센터가 중국과 일본에 설립된 센터와 협력해 유네스코 협약(2003) 제19조의 정신에 따라 아시아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모두 한국이 이렇게 많은 국가의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데 고무되어 있으며, 이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이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일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2003)¹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소극적 인식 제고가 정보 보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인식

* _ 본 원고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민국 서울 2009. 11. 3-4)를 위해 제출되었음.

** _ 연락처 : gaura@cbn.net.id

1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전문, 제1조(c), 제14조.

제고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이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필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청소년 등 대중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사용한 여러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또는 등재 후보로 신청된 와양(Wayang), 크리스(Kris), 바틱(Batik), 앙글룽(Angklung) 등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노력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소지역 차원의 노력(아세안인형극협회)도 참조할 것이다. 필자는 이 모든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접근방안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유산 협회 설립, 강화, 네트워크
2. 청소년 대상으로 비형식 교육기관(상가르, 파구유반)을 통한 교습자료 구비 및 전승 촉진
3. 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 수업 편성
4. 대중 행사 개최 청소년의 참여
5.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실천을 위한 전반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무형문화유산 협회 설립, 강화, 네트워크

특정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향유자로 구성된 협회는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협회 회원, 일반 대중, 청소년 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증진할 수 있다. 정부 관료는 통상 격무로 인해 개별 무형문화유산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없지만, 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협회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협회를 설립하여 특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향유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협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협회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협회

가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회들을 모으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진작할 수 있는 상부 단체나 포럼을 창설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와양사무국 *SENA WANGI*, 인도네시아달랑협회 *PEPADI* 등 두 개의 외양 전국협회가 활동해 왔다. 이외에 상가르라고 불리는 외양 인형극 비형식 학교가 많이 있다. 외양의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에는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된다(아래 2 참조). 협회들은 정기적으로 외양에 대한 전국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이러한 학교들을 초청함으로써 학교 간 네트워크를 진흥했다.

2006년 중반 인도네시아와양사무국은 제1차 아세안 인형극 축제(2006.11.30-12.3/자카르타)를 개최했다. 축제에 맞춰 아세안 인형극 심포지엄이 열리고 아세안인형극협회 *APA* 선언이 발표되었다. 2006년 12월 2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 인형극 공동체 대표가 *APA* 선언에 서명했다. 다음 날 미얀마 인형극 공동체 대표가 선언에 동의함으로써 아세안 10개국 예술가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APA*는 정관과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사무국을 설립하였으며 연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APA*의 목적은 소지역, 즉 동남아시아 차원에서 인형극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크리스의 경우, 파구유반이라고 불리는 크리스 애호가 비공식 협회가 만들어져 곳곳에 확산되었으나, 전국협회는 없고 협회들 간 비정기적인 네트워크만 있었다. 몇몇 공동체 회원들이 전국 사무국 설립을 제안하여 선언과 사무국 정관 및 의사규칙 만들어졌다. 2006년 3월 12일 요그야카르타의 브레테부르크 포트 박물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 크리스 세미나에 협회 대표들과 대학, 박물관 등 관계자가 모여 인도네시아 크리스 사무국 *SNKI* 설립을 선포했다. 필자도 문서 기초작업에 관여했고 이후 2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처음에 15개 협회가 *SNKI* 설립에 참여했으나 이후 더 많은 협회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SNKI*는 서로 다른 지역의 30개 협회를 조정하고 ‘크리스 *Kris*’라는 잡지도 발간한다.

2_ 인도네시아 크리스 사무국(*SNKI*) 선언문, 2006.3.12

인도네시아 바틱은 이미 애호가 협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 몇몇은 야야산 바틱 협회(인도네시아 바틱 재단)와 같이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었다. 요그야카르타에 있는 세카르 자가드 파구유반은 무형문화유산이 있는 많은 지역의 바틱 애호가들이 파구유반을 설립하도록 장려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페칼롱안 바틱 박물관, 수라카르타 다나르 하디 박물관, 요그야카르타 술탄 팰리스 바틱 박물관 등과 같은 박물관과 개별적인 바틱 공동체 회원들이 있다. 당시 전국 규모로 바틱 무형문화유산 보호 의사를 밝힌 조직은 없었다. 기존 조직과 재단은 이미 각 지역에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므로, 상급 조직보다 인도네시아 바틱 공동체 포럼 *Forum MASBATIK*을 창설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인식되었다. 7명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8월 22일³에 포럼 창설이 선포되었다.

앙클롱 음악협회 *MMA*(자카르타), 사옹 앙클롱 우드조 *SAU*(반둥) 등 앙클롱 조직은 두 개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무형식 앙클롱 집단이 학교와 대학교에 있다. 상급 조직이나 포럼이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8월 11일⁴ 모든 관계자가 앙클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목표로 선언문을 채택했다.

조직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무형문화유산이나 아세안인형극 협회와 관련된 필자의 다년간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의 조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관료화되어 행정기능에 치우친 나머지 현장에서 실제적인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인식제고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못하는 협회나 포럼이 생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관료주의적 기능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⁵ 무형문화유산 조직은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곤란하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가진 협회들이 있다면 분명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려면 때때로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3. 인도네시아 바틱 공동체 포럼 선언문, 2009. 8. 22

4. 인도네시아 앙클롱 공동체 회원단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에 대한 선언문.

5. 베트남 하노이에서 문화유산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의 발표 '무형문화유산보호 우수 및 실패사례'(2008.12.17)에서 인용.

II. 청소년 대상 비형식 교육기관(싱가르, 파구유)을 통한 전승 교습자료 구비 및 촉진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향유자들을 위한 싱가포르 학교와 파구유반 협회는 일반적으로 비형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젊은 세대에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사용하는 교습자료나 교육과정, 조직화된 전략이 부재하다. 과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대개 구전 또는 비형식적 방법에 의존했다. 구전과 비형식 교습방법을 보존하는 한편, 훈련 매뉴얼 및 시청각 자료의 형태로 교습자료를 만들어 무형문화유산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들의 교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125개 기관, 4,259명의 보유자와 전승자를 다양한 범주를 두어 지원하는 본보기이다.⁶

유네스코 신탁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인도네시아와양사무국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인도네시아 와양 무형문화유산보호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양식의 와양 인형극을 위한 교습자료가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수라카르타, 요그야카르타, 시레본, 발리 양식의 와양 쿨리트(그림자 인형극)뿐만 아니라 서(西) 자바 골렉 순다,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두 종류의 와양인 남(南) 수마트라 와양 팔렘방과 남(南) 칼리만탄 와양 반자르도 포함한다. 훈련 매뉴얼 및 시청각 자료로 구성된 교습자료는 숙련자, 전문가, 예술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되어 싱가포르 전통 학교에 배포되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은 재정적 보조금을 받았다. 약 15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다. 위험에 처한 두 종류의 와양에는 인형과 반주 악기인 가믈란을 복제하고, 생존해 있는 소수 숙련자의 교습 및 학생들의 훈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책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와양 무형문화유산보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와양 팔렘방과 와양 반자르는 소멸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구출되어 지금은 다시 발전하고 있다.⁷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크리스 무형문화유산보호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크리스 문화유산 교습자료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당시 시행되지 못했으나, 중부 자바 수라카르타 외곽에서 크리스 숙련 장인들을 훈련시키며 바수키

6.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분류목록 심포지엄'(2009.8.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성용의 발표에서 인용.

7. 2005-2007 인도네시아 와양 무형문화유산보호 실행 계획 보고서.

태구 유위노가 운영하는 전통 상가르에 의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몇몇 활동은 자카르타 다마르타지(DAMARTAJI) 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SNKI 역시 크리스 애호가들의 마구유반 협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요그야카르타에 있는 세카르 자가드 파구유반과 같이 바틱 공동체 중 몇몇 협회는 소책자 형태로 교습자료를 갖췄다. 다른 곳들은 바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마련했다. 몇몇 협회는 바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 중점을 둔다.

앙클롱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교습자료는 현재 매우 적은 편이다. 앙클롱 음악협회(MMA), 사옹 앙클롱 우드조가 소형도서, 보고서,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앙클롱 교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습자료를 준비한다. 이 분야에서 앙클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더 많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비형식 학교나 협회가 사용할 교습자료 구비를 지원하는 일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보호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III. 학교 및 대학 교육 과정에 무형문화유산 수업 편성

전통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비형식 교육을 통해 세대간에 전수되어 왔다. 예를 들면, 비형식 학교나 센터(인도네시아의 상가르)에서 숙련자가 일정한 교육과정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흔히 학생은 스승을 섬기며 가족처럼 생활한다. 이런 체제는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50년동안 줄곧 학교와 대학교의 공식교육이 교육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아 왔다. 6년간, 지금은 9년간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청소년은 종종 학교 교육과정 밖의 다른 것을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청소년 사이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시청각 자료와 서양 대중문화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관계자들은 무형문화유산 수업을 과외활동 또는 '지방 고유 수업'으로 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에 편성할 것을 제안해 왔다. 핵심 교육과정 틀에 '지방 고유의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은 2003년 법률 제20호가 제정되면서 촉진되었다. 법률20호의 제

33조는 초등 교육 수준에서 수업을 전달하는 언어로 공용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방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6조 2항, 제3항 제4호는 다양한 지방 잠재력에 맞춰 교육을 다양화하도록 명시한다. 제37조 제10호는 국가교육 교육과정에 지방 고유의 내용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 고유의 내용’은 지방어,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원칙 지지를 포함한다. 지방정부에 관한 2000년 법률 제32호, 지방자치 지원실 설립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 제106호는 지방 정부가 지방어, 의복, 예술, 음식 등 지방 문화에 주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외양의 교육 시수 편성은 그동안 종종 제안되었으나 실시되지는 못했다. 외양 인형극과 문화를 가르치는 직업고등학교 몇 곳과 외양 인형극 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 네 곳이 있지만, 외양은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크리스 문화가 있는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 수업을 편성하도록 하는 실행 계획을 공동체가 제안하였으나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 무형문화유산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상당한 성공을 이룬 대학이 ISI 수라카르타(예술 대학교)이다. 학생들의 과외 활동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어 결국 학과로 발전하게 되었다.⁸

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기 위해 가장 큰 노력과 성공이 경주된 분야는 인도네시아 바틱 무형문화유산이다. 중앙 자바에 위치한 페칼롱안시(市)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 2005년 페칼롱안시 시장은 시내 모든 학교에서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전문학교에서 젊은 세대가 문화유산인 인도네시아 바틱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전통 기술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한다.
- 젊은 세대에 바틱 문화를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와 페칼롱안 내 바틱 공동체의 인식을 증진한다.
- 바틱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수공예 훈련 등 학생과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활동에 바틱 박물관 경영진과 직원을 참여시킨다.

8. 다마르타지 재단이 제출한 인도네시아 크리스 등재신청문서(2004)에서 인용.

페칼롱안시에 있는 230개 교육 기관 중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수가 2005-2006년에 1개에서 2006-2007년에 100개, 2007-2008년에 194개, 2008-2009년에 230개에 이르게 되어 현재 페칼롱안시 교육기관의 100%가 모든 학생에게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래의 평가와 같이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⁹

- 모든 응답자가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한 초등학생은 매일 바틱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했다.
- 모든 응답자는 프로그램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바틱 문화유산과 전통 수공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 교장 및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활발해졌다고 생각하며, 이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래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기술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집중력, 인내력, 자신감, 협업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바틱 디자인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예 : 학교 로고를 바틱으로 제작)
- 몇몇 학생들은 함께 모여 바틱 하나를 공동으로 작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익혔다(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 프로그램은 페칼롱안 지역뿐만 아니라 바탕, 페말랑, 테갈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바틱 박물관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 학생들은 훈련 중 그들이 스스로 제작한 바틱을 집에 가져가 부모나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스스로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는 바틱 문화유산에 대한 부모와 일반 대중의 인식 증진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에 참가한 훈련가, 교사, 학생들 모두에게서 행복감과 열의를 볼 수 있었다. 모두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했다.¹⁰

9. 페칼롱안시 참가자와 바틱 공동체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인터뷰 조사(2009.1.30, 2.13-14).

10. 우수사례 등재신청서 '바틱 박물관이 협업한 페칼롱안시 학교와 폴리테크닉 학생을 위한 인도네시아 바틱 무형문화유산교육과 훈련'(2009)에서 인용.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우수사례 *Best Practice for Safeguarding ICH*로 유네스코에 신청되었다. 프로그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부다비에서 평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페칼롱안 바틱 박물관은 적극적으로 외국 연구자들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각국이 응용할 수 있는 예로서 프로그램을 참관하도록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앙클롱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앙클롱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서 자바 지역(앙클롱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발견됨), 특히 반둥시(市)이며, DKI 자카르타와 반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온음계의 앙클롱 또는 앙클롱 파명이 개발된 이후, 앙클롱 문화는 모든 수준의 학교와 대학의 과외 활동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앙클롱 교육은 나름의 구전 방식이 있어, 앙클롱에 대한 교과서는 거의 없다. 앙클롱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준비과정에서 만난 응답자 76명 모두 아이들이 앙클롱을 배우고 싶어한다는 데 공감했다. 응답자 중 22명의 학생(유치원생 2, 초등학생 4, 중학생 5, 고등학생 6, 대학생 5)들이 앙클롱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이는 교장 9명, 앙클롱 음악 훈련가 9명으로부터도 확인되었다.¹¹

응답자 76명은 경험상 앙클롱이 문화적 대화와 의견 교류의 도구가 되며, 연주자 간 상호존중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앙클롱은 연주자 간 협력과 상호존중 없이는 연주가 불가능하다. 땀 쇼에티그나에 따르면, 오비 위라미하르드자 *Obby A.R. Wiramibardja*¹², 비타 무티아라, 인터뷰에 응한 교장 9명과 앙클롱 훈련가 9명이 확인한 바대로, 앙클롱 합주는 연주자, 특히 어린이의 선한 심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한 심성은 예술적·음악적 감각뿐만 아니라, 협력(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규율, 책임감,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상호존중, 동기부여, 평등의식, 감수성, 섬세함을 포함한다. 리아오주 바탐섬에서는 앙클롱 오케스트라가 '성격 형성'¹³에 활용된다. 또한 앙클롱은 뇌졸중 환자, 자폐 어린이, 뇌장애 환

11_ 인도네시아 앙클롱의 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목록 등재신청서에서 인용.

12_ 인터뷰(2009.8.1)

13_ 비타 무티아라, 씨, 파두안 수아라 에델바이스, 쿠르수스 피아노 에델바이스, 바탐, 2009. 앙클롱 연주를 통한 성격 형성을 포함하여, 리아오 주 바탐섬에서의 앙클롱 오케스트라 훈련에 관하여 서술한 문서.

자를 치료하고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데 사용되어 왔다.¹⁴

앙클롱 공동체 회원단체들은 앙클롱 문화가 있는 지역 내에서 더 많은 학교가 앙클롱을 과외 활동 또는 지방 고유의 내용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정부가 권고할 것을 왔다. 학교에서 앙클롱을 가르치는 일은 한국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사옹 앙클롱 우드조에 따르면, 앙클롱이 한국의 많은 학교¹⁵에서 시연되었고 2004년부터 한국에서 앙클롱 축제가 개최되었다.

IV. 대중 행사 개최와 청소년의 참여

무형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는 대중 행사는 분명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에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행사의 조직, 실행, 참여에 청소년이 관여되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증진될 것이다.

SENA WANGI, PEPADI는 정기적으로 와양 인형극 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들 행사에는 청소년이 조직위원회, 연행자, 참가자의 일부로 속해 있다. 축제와 공연은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기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왔다. 2008년 5월 21-24일 자카르타에서 PEPADI가 연출한 어린이 달랑(인형을 부리는 사람) 축제는 주목할 만했다. 인형을 부리는 어린이 20명은 8~14세로, 6개 지역에서 참여하여 각각 1시간씩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그들 중 다수가 나중에 ISI 수라카르타 예술 대학교에 입학하여 인형사 *puppeteer*가 되고 싶어 했다.

2006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회 아세안 인형극 축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10개 아세안 국가에서 인형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증진한 행사였다. 10개국 중 9개국이 공연한 인형극 각각을 수백 명의 학생들이 관람하여 자국의 와양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인형극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이 행사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문화를 통한 우정'을 쌓기에 충분했다. 많은 학생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일했다.

2006년 3월 요그야카르타의 브레데부르크 포트 박물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 크리스 세미나에 상당수의 요그야카르타 내 학생들이 크리스 문화유산 전시를

14_ 반둥에서의 세미나, 2009.8.11

15_ 박선우 외 1인. (<http://www.bambell.com>)

참관했다. 그들은 크리스 제작과정 시연도 관람했다. 2008년 11월에는 수리카르타에서 개최된 문화도시 회의 일부로 만크흐네가란 팰리스에서 크리스 전시 및 제작과정 시연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관했다.

2009년 8월 26-30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겔라르 바틱 누산타라 전시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바틱을 손으로 그려 만드는 요령을 배우고 전시를 관람했다.

2009년 8월 11일 반둥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앙클롱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검증 세미나에 학교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33개 지역에서 온 학교 어린이들이 앙클롱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도록 훈련받았고, 8월 17일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기타 바하나 오케스트라의 일부로 참여해 공연했다.

이러한 모든 행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청소년 및 대중의 인식을 증진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 특히 청소년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연하거나 전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무형문화유산보호와 발전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함께 인식마저도 서서히 감소해 갈 것이다.

V.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지난 몇 년간 외양, 크리스, 바틱, 앙클롱 등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실제로 수백 건의 신문 및 잡지 기사, 상당 시간 분량의 TV 뉴스와 특집보도가 있었다. 2006년 제1차 아세안 인형극 축제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언론과 전자 미디어 보도는 유산의 보호자로서 직접 관여된 몇몇 사람들을 넘어 무형문화유산과 개별 유산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디어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정확히 보도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정 유산이 가진 종교적, 비공개적 지식과 기술에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을 존중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에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그 성격상 수동적이고 순간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적인 인식과 무형문화유산보호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접근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네 가지의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아세안인형극협회(APA)의 소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접근방안의 활용은 아래와 같이 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특정 접근방안은 특정 무형문화유산에만 적용되고 다른 유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유산을 보호하면서 대중 및 청소년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적합한 '범용 대책'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이러한 접근방안들이 유용한 정보가 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다른 나라의 노력에도 응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유네스코 협약(2003)이 입안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네트워킹과 정보교류, 특히 아시아 인접국가 간 협력이 우리의 보호 노력의 결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협회, 형식·비형식 교육기관과 같이 접근방안 1, 2, 3에 관여한 주체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네트워크할 수 있다. 국제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공연하도록 하면 예술가와 연행자들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뉴스를 국제 미디어를 통해 교류하는 것도 무형문화유산 인식제고에 도움이 된다

접근방안	외양	크리스	바틱	앙클롱	아세안인형극협회
1. 무형문화유산 협회 설립, 강화, 네트워킹	v	v	v	v	v
2. 청소년 대상 비 형식 교육기관을 통한 교습자료 구비 및 전송 촉진	v	추진	v	미비	미비
3. 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 수업 편성	제한	제한	v	v	미비
4. 대중 행사개최와 청소년의 참여	v	v	v	v	v
5.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v	v	v	v	v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접근방안들